



# 브라가의 소식들

## Beracah Vally News

갈보리선교회

호외보(1)

\*\* 제22차 국내순회전도 및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전도보고 \*\*

### 15년의 신앙생활

이택림(전차대대 2중대. 상병)

내 15년 신앙생활... 모두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어릴 때 그 순수했던 믿음은 점점 커가면서 기독교 집안 자녀들의 최대 문제점인 자만이란 것에 부딪혀 세상 친구들과 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술, 담배를 배우기 시작했다.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어떤 것이 크리스찬인지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15년의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이 확 트인 느낌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가대도 해보고 교회학교 교사, 찬양단에서 기타도 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들이 날 위한 것임을 이제 알았다.

주님은 한 번도 생각 안하고 그냥 만나면 꺾꺾해서 교회 나가고... 그런 생활을 회개하게 되었다.

내게 신앙의 길을 다시 정립시켜준 갈보리 선교단에 정말 감사드리고 그들을 택해서 들어 쓰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선교단원들 힘내세요. 목사님도 좋은 활동 많이 해 주세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 나의 삶을 변화시킨 집회

(광주 목양제일교회. 중고등부)

사실 나는 이번 수련회에 내 친구 교회를 따라서 왔다. 처음에는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늘 갈보리 선교단의 공연을 보면서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

공연 중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일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나 죄인이었으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죄를 멀리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드라마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이



미 내가 알고 있었고 많이 보아왔던 것이었지만 이번 갈보리에서 보여준 그런 무언극 드라마는 처음 보았다. 극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는 장면은 나에게 충격이었다.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나는 19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나는 과연 그 분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등 많은 생각을 하였다.

드라마 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남은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 별래만도 못한 죄인인 나의 죄를 사하러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일을 나도 하고 살 것이라고, 주님만을 섬기고 살 것이다.

이 수련회에 참석케 해주시고 갈보리 선교단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내 삶이 변화가 될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눈물로 다가온 예수님의 고난

윤나라(여수 중앙교회. 청년부)

은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힘찬 목소리와 울동 속에서 느껴지는 찬양단의 열정이 무덤덤했던 저의 신앙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로만 찬양하던 나에게 혼신을 다해 드리는 갈보리 선교단의 찬양은 조금은 충격적이었고 은혜스러웠습니

다. 은 몸으로 드린 다윗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처럼 갈보리 선교단의 찬양과 울동을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일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진정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드라마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표현되어 주님께 서 당하신 고통들이 나에게 눈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질 소리가 귀청을 울릴 때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느꼈을 고통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던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이 그토록 아픔과 고난의 길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집회를 통해 이제껏 21년동안 안주하고만 있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비로소 알게 된 예수님

윤성도(완도대대. 상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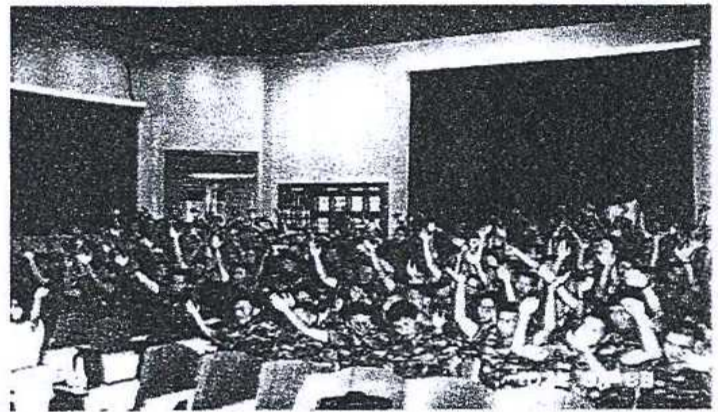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이렇게 글을 쓰는 것에 대해 옳은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집회에 참석하고 나서 저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고, 무엇보다도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합창할 때는 처음에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정말 잘 부르셨고 목사

님의 메시지는 많은 것들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드라마 할 때는 채찍질하는 장면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위문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대에 오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식었던 전도열이 붙은 집회

박금란 (광주빛과사랑교회. 집사)

처음 예배를 여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몸 찬양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과 기대에 몹시도 들뜨기 시작했다. 찬양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예배의 순서는 지금까지 찬양집회와 많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지내 오는 주일의 특유한 피곤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 제22차 국내순회전도 보고

가. 일시/ 2002년 8월 4일(주)부터 8월 17일(토)까지

나. 대상지역/ 전라남.북도 일원

다. 대상기관/ 낮시간-군부대, 장애인 집, 고아원, 양로원 밤시간-일반교회, 군부대

라. 특별전도팀 구성/ 1. 총지휘-김승석목사(서울충만교회, 단장, 선교회장)

2. 메시지 및 지도위원-박신봉목사(서울성암교회, 이사장), 김중남목사(태안파도교회, 이사), 주정림간사, 김정은간사, 윤정화간사, 유선영간사

3. 단원-김철우(서울충만교회, 간사) 외 15명

마. 집회일정/

	주	월	화	수	목	금
1주간	8/4 *상무대교회	8/5 *목포공생원 +재활원 *해군목포교회	8/6 *부안대대 *광주목양 제일교회	8/7 *여수대대(1차) *여수은현교회	8/8 *무안대대 *능주중앙교회	8/9 *영광대대 *빛고을찬양교회
2주간	8/11 *나로도봉영교회 *광주빛과 사랑교회	8/12 *목포자혜양로원 *완도대대	8/13 *나주계산원 +성산원 *31사단신교대	8/14 *여수대대(2차) *여수중앙교회	8/15 *강진대대	8/16 *목포장애인 요양원 *해남남부교회

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무언극을 보며 줄음에서 번쩍 깨어났다. 단원 한사람 한사람의 모습이 많은 기도와 훈련, 말씀의 묵상으로 얻어진 소중한 피와 땀의 결정체임을 깨달으니 피곤으로 졸았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나는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탄생시킨 갈보리 선교회의 사역과 열정적으로 전하시는 복음을 들으며 마음으로부터 깊이 울고 있었다. 작년 전도집회 때 나는 일년에 천명을 전도하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해 놓고 너무나 게으르게 나의 현실과 타협하며 기도마저도 전도는 빼고 일상적인 기도를 하였다.

이런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기도로 깨어나야겠다는 다짐이 용솨음쳤다.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너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젠 어떠한 마귀의 방해도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단원들의 찬양과 울동이 나의 죄악을 회개케 해주시고 나의 생애를 더 아름다운 전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찌릿 찌릿한 성령의 감동

성현정(서울 성결교회, 부단원)

갈보리선교회에서 함께 훈련받은 두달간의 시간과 1주간의 순회전도는 내 8개월간의 믿음 생활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앞으로 갈보리선교단원이 되어서 주님의 일군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감사와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첫 순회전도! 아직 예비 단원인 나는 기도로 준비를 많이 했고 단원들이 기도후원을 해주었기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순회전

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한주간이었지만 갈보리선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으며 주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순회전도에 오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가족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선뜻 갈보리선교회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데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았지만 마침 다가온 어머니의 생신 날 양로원이나 장애시설 등에 봉사하러 간다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교회에서 가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때 비로소 난 갈보리선교회를 말했다. 어머니는 쉽게 허락을 해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찌주간 전도에 합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회전도를 떠나기 전에 기도한 것들을 모두 이루어주셨다.

먼저 구름과 비로 선선한 날씨를 만들어 주셔서 더위로 지치지 않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집회를 하기로 한 교회나 각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놓으시고 우리들을 맞이하게 하셨다. 특히 여수중앙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우리가 올 때까지 하루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긴장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순회전도 기간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고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같은 집회를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매 집회 때마다 내 몸에서 찌릿찌릿 전기가 오르듯이 감동이 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임재하시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나에게 이번 순회전도는 정말 값진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귀한 대열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풍성하고 충으신 나의 하나님

김정은(서울중만교회, 무용간사)

벌써 순회전도 들찌주가 다 지나고 있다. 이번 순회전도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 많았다. 우선 특별훈련 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2주 모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나는 내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다른 회사로 나를 이직하게 하신 것이다. 갑

작스런 일이었다. 이것은 사장님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휴가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한 달을 얻게 된 것이다. 이번 순회전도를 향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순회전도를 다녀온 후에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있었던 나에게 휴식을 주시며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까지 주신 것이다.

또한 이번 순회전도 때 감사했었던 것은 바로 언니의 가족이 모두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처음엔 순회전도 첫 집회인 상무대로 오려고 했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오지 못했었다. 하지만 곧 몇 일 뒤에 있는 집회장소가 언니가 살고 있는 곳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으로 와서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히 가장 좋게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냉랭하고 철벽과도 같던 언니가 드디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된 것이다. 너무도 감사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해 왔는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다. 이번에 야말로 그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아주 높은 컷라인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도 아님을 알았다. 아주 조금,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봐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크고 많은 것을 주시는 너무도 풍성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다.

## 2002년 2월부터 8월 말까지 전도현황

### 교 회

광주목양제일교회(김양인목사)/광주빛고을찬양교회(최정식목사)/광주빛과사랑교회(리종기목사)/능주중앙교회(심상태목사)/봉영장로교회(서태종목사)/신영광교회-2회(김재기목사)/여수은현교회(김정명목사)/여수중앙교회(이호윤목사)/오정성화교회(이주형목사)/초성감리교회(맹동식목사)/황산남부교회(최동식목사)

### 군부대

5사단신교대(이석우목사)/공군제15비행단(신성열목사)/9군단사령부(최성균목사)/3군수지원사령부정비대대(이영구목사)/5사단196포병대대(한성환목사)/25사단72연대(엄일국목사)/5사단수색대대(신영

수목사)/8사단16연대(김진혁목사)/5사단사령부(이석우목사)/국군덕정병원(정대관목사)/28사단신교대(계인목사)/9사단신교대(이현식목사)/25사단70연대대2대대(안만국목사)/25사단27연대3대대(김모세목사)/5사단포병연대988포대(김완호목사)/공군17비행단(유계문목사)/9사단52포병대대(김만출목사)/25사단70연대1대대(안만국목사)/1군단사령부(홍석훈목사)/20사단사령부(차남희목사)/26사단73여단121기보대대(전영일목사)/국군의무사령부수도병원(최성균목사)/25사단70연대(안만국목사)/25사단70연대3대대(안만국목사)/1포병여단(문호빈목사)/1공병여단(최석환목사)/국군벽계병원(김경모목사)/26사단73여단본부

(문장옥목사)/1사단사령부(김선영목사)/65사단사령부(나문찬목사)/1사단신교대(박성원목사)/25사단사령부,직할대대(이정우목사)/101여단(채효기목사)/상무대교회(이호열목사)/해군목포교회(꼭은광목사)/부안대대(이병재목사)/여수대대(홍현선집사)-2회/무안대대(지금구집사)/영광대대(배원영집사)/완도대대(장정환목사)/31사단사령부+신교대(박광석목사)/강진대대(김영상집사)

### 특수시설

목포공생원,공생계활원/목포자혜양로원/나주계산원,성산원/목포장애인요양원/청암노인양로원

### 유지장전도팀

\*3~4개 팀이 다음과 같이 토요일 오후시간에 전도함.

서울팀/ 강남서,강동서  
대전팀/ 대전서,서부서,동부서

## News Line

- ◎ 입단/ 서울 흥은성결교회 청년인 성현정지매기 부단원으로 입단 함.
- ◎ 세이사회원/ 광주빛과사랑교회(리종기목사님) 제22차 국내순회전도시 집회했던 교회로써 광주지역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교회임.
- ◎ 새후원회원/ 유순옥,김오중성도: 제22차 국내순회전도시 해군목포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임.
- ◎ 입대/ 그동안 특별전도팀의 부연지니어로서 또한 유지장전도팀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박충인단원(서울 성암교회)이 육군(17사단)에 입대함.
- ◎ 컴퓨터 시스템 보완/ 구 단원인 임유화자매의 현금으로 컴퓨터 본체를 비롯하여 신기종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입, 보완함.
- ◎ 홈페이지 제작 중